‘일조량 부족’ 농업재해 인정 이끌어냈다

정부, 전남도 건의 수용…농작물 피해 조사 실시
내달 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고·접수

전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도 농업재해로 인정받게 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조량 부족으로 전남지역 시설원예 작물 피해가 속출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18일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감소를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져 농작물 피해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조량 부족이 농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201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4월5일까지 농작물 피해 신고·접수를 한다. 일조량 부족 피해 농민은 농경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나주, 담양 등 전남 주요 지역 평균 일조 시간은 133시간으로 최근 10년간 전국 평균 일조시간(177시간)에 비해 25% 감소했다. 특히 2월에는 비가 15일간 내리며 딸기 등 시설원예 작물에서 생육 지연, 기형과 발생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다른 재해와 달리 육안으로 즉시 확인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에서 기상과 농작물 피해와의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재해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최근 30년 평균 지역별 일조량 분석, 타 지역과 동일 작물 대조군 비교, 품목별 피해 분석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며 지난 2월부터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도록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해 왔다.

전남도가 이 같은 선제적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 일조량 부족도 농업재해로 인정받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겨울철 일조량 부족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난방기 사용으로 경영난 가중이 겹친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재해가 최종 인정돼 농업경영 안정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18일 오후 도청 정약용실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 6개 금융회사(농협·우리·국민·하나·신한·카카오뱅크)와 전남도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회사 특별출연(48억원)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道, 소상공인 756억 규모 융자 지원

신보·6개 금융사 48억 특별출연 협약…보증한도 1억

전남도는 18일 도청에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통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농협·우리·국민·하나·신한·카카오뱅크 6개 금융회사와 48억원 특별출연 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회사의 공동 출연금을 기반으로 전남신보에서 협약보증을 공급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자금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자금 융통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6개 금융회사의 공동 출연금은 48억원 규모로 NH농협은행 20억원, 우리은행 8억원, KB국민은행 6억원, 하나은행 5억원, 신한은행 4억원, 카카오뱅크 5억원이다. 지난 2월 협약한 광주은행 출연금 15억원까지 합해 63억원을 재원으로 총 756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경영이 어려운 전남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보증한도는 어려운 경제 환경을 반영해 업체당 최고 1억원으로 확대했으며 대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 전액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에게는 최대 2천만원의 중복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시원 기자

‘청정전남 으뜸마을’ 860곳 추가 선정

전남도가 2021년부터 추진한 주민 주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올해도 본격 추진한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내 마을은 내 손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가꾸기 특화사업이다. 인식 전환, 환경 정화, 경관 개선 등을 진행하며 주민 화합과 마을공동체 정신회복에 중점을 두고있다.

으뜸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해마다 500만원 씩 3년간 총 1천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올해는 이미 선정된 2천25개 마을과 신규로 선정된 860개 마을, 총 2천885개소에서 으뜸마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2021년 선정돼 3년 간 지원이 종료된 993개 마을은 으뜸마을 사업을 마중물로, 타 마을 사업 지원을 받도록 주민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찾아가는 마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각 시·군에 사후관리 지원단을 지정·운영해 지원 종료 마을에 대한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5·18 왜곡·폄훼’ 황상무 수석 해임 요구 ‘빗발’

5월 단체 “자신 영달 위해 5월 이용 이익 챙겨”
姜시장,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은 왜 침묵 지키나”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해임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18공법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1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북한군 개입설에 동조한 황 수석은 5·18 왜곡 세력을 부추기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오월을 이용하고 이익을 챙겼다”며 “대통령실은 황 수석을 즉각 파면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오월정신지키기범시도민대책위원회도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5·18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며 “황 수석을 계속 감싸고 도는 것은 반민주적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몇 차례 언급한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이 진심이라면 당장 황 수석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황상무 수석 경질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광주는 세계인이 찾는 민주주의의 학교”라며 “지난 금요일(15일)에는 덴마크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을 배우러 광주를 찾았고 어제(17일)는 아일랜드 차관과 대사가 시청과 망월동을 찾았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세계인들이 ‘민주주의의 도시, 광주’를 배우고 찾는 이때, 공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5·18을 왜곡하고 폄훼했다”며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시장은 “국힘당(국민의힘)은 도태우 변호사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는데 대통령실은 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까”라며 “당장 황상무 수석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수석은 최근 출입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하고, 5·18과 관련해서도 “계속 해산시켜도 하룻밤 사이에 4-5번이나 다시 뭉쳤는데 훈련받은 누군가 있지 않고서야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박선강·주성학 기자

광주시, 포트홀 복구 데이터 ‘한눈에 확인’

‘공간정보시스템’ 탑재…정비 우선순위 등 보수계획 활용

광주시가 포트홀 복구 위치 데이터를 광주시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해 일원화한다. 노선별 발생 현황과 파손 유형 등 정보 분류 체계를 개선해 도로 보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속 복구·관리하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18일 “오는 5월부터 포트홀 복구 현황을 공간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로의 포트홀 복구 현황 데이터도 동일한 시스템에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가 운영하는 공간정보시스템은 공간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탑재한 도로기반시설물 통합 관리시스템으로 상수도, 하수도, 가스 통신 관련 정보가 담겨 있다.

그동안 포트홀 관리는 복구 담당자만 포트홀의 경위도 좌표, 시간 등 속성값을 알 수 있었지만 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가 포함된 사진 파일로 현황 지도를 구축하는 등 관련 데이터를 시스템에 일괄 탑재, 직원 누구나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폭 20m 이상의 도로 378개 노선, 597㎞에 달하는 노선을 관리하고 있는 광주시는 공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포트홀 복구 현황 등을 통해 도로 순찰이나 도로 정비 우선순위 등을 정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또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로에도 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포트홀 복구데이터 탑재 일원화는 각 부서간 협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펼치는 대표 사례”라며 “시민과 밀접한 민생분야의 데이터를 관리해 과학적인 데이터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1면 ‘통합의대 신설’서 계속

김 지사는 ‘순천대와 목포대의 대학 간 통합이 안 될 경우 단일 의대로 선회하느냐’는 질문에 “정부와 이견을 조율하겠다”며 “단일 의대를 하더라도 통합 의대 효과가 나오도록 한쪽은 만세를 부르고 한쪽은 수긍하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 경우에 따라 정치적 책임감을 갖고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답했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1) [월세110% 돈덩이매물] 대지3,170㎡ 원룸60개
주인전원주택165㎡ 보4,500 월세1,480 매가14억3,800
2) [50%급처분] 신세계 백화점 6차선 대로변1,650㎡
급매 3.3㎡ 당2,000만원 주상복합최적
3) [재개발예정정문앞] 중흥동 대249㎡ 3층건물
급매5억8,000 시세50%급매물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

CMYK